

대학생의 역기능적 태도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최선미^{1*}, 윤성원¹, 손민정¹
¹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Sun-Mi Choe^{1*}, Sung-Won Yun¹ and Min-Jeong Son¹

¹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 약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역기능적 태도가 취업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 600명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 5. 21.~6. 1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역기능적 태도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상태 27%, 유발상황 18%, 부모기대 10%로 나타났으며 특히 완벽성이 취업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의 상관분석 결과, 역기능적 태도는 심리상태-유발상황-부모기대에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을 낮추고, 그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기능적 태도에 관해 보다 면밀한 진단과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완벽성의 역기능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취업목표를 성취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mid ever-increasing job-seeking burden and anxiety of college student, this study examined how their dysfunctional attitude affected job-seeking anx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0 college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 The survey period was conducted from May 21, 2012 to June 1. The study had the findings as below. First, the impact of dysfunctional attitude on job-seeking anxiety was found in the form of 27% physical condition, 18% aroused situation and 10% parental expectations, and especially perfectionism had substantial impact on job-seeking anxiety. Seco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ysfunctional attitude and job-seeking anxiety showed that dysfunctional attitude had direct relationship with all of physical condition, aroused situation and parental expecta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more in-depth analysis of dysfunctional attitude and proper interventions are required so that students are able to lower their job-seeking anxiety, prepare healthy work life in society. So is requir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work as a driving force for students to minimize their dysfunctional aspects particularly pursuit of perfectionism and seek jobs as wanted.

Key Words : Job-Seeking Anxiety, Dysfunctional Attitude, Perfectionism

1. 서론

감정은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이 지나치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불안은 실제로 과도하게 두려운 무언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니 신

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나 경고다. 불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성취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1].

평생의 학업을 마치는 대학생의 성취 잣대로 보통은 취업을 떠올린다. 이런 주변의 시선과 청년취업이 쉽지

*Corresponding Author : Sun-Mi Choe(Kyonggi Univ.)

Tel: +82-2-513-9091 email: yin123@hanmail.net

Received April 2, 2013

Revised (1st April 30, 2013, 2nd May 25, 2013)

Accepted July 11, 2013

않은 현실 상황에서 취업에 대한 부담을 넘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어쩌면 당연하다. 유치원생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진로와 취업 문제가 화두지만, 특히 20대 청년의 취업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그 고민이 더 깊다고 하겠다. LG경제연구원은 '2013년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3년 취업자수 증가가 28만 명에 그쳐 작년 45만 명 증가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발표했다. 통계청[2]에서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50대, 60대 취업자가 각각 21만 3천명, 19만 1천명 증가한 가운데 20대 취업자는 12만 4천 명 감소하여 11개월 연속하여 대폭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했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감정들은 생각을 바꾸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인지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Beck의 인지모형에 의하면 부정적 신념, 역기능적 태도 등을 가진 사람은 그 신념으로 인해 잘못된 인지도식을 통해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적응적 감정을 더 경험하게 된다[3,4]. 부적응적 정서가 인지예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검증된 연구 결과들이 있다[5-7]. 이는 인지가 부적응적 정서에 앞선다고 주장한 Ellis의 관점과 유사하다[8].

따라서 취업불안 역시 부적응적 정서의 하나이므로, 인지이론 모형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 Beck 등의 인지이론을 취업불안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적용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9]. 따라서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대학생이 더욱 취업불안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10].

취업불안이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11].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관해서 2008년부터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조규판은 취업관련 인지가 취업불안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유발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취업불안을 느끼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 취업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1]. 이는 정신분석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불안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반해 행동주의심리학에서 불안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12].

김홍석[9]의 연구 결과에서도 인지적 변인들은 취업불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분석을 통해 부모양육태도, 강요된 사회비교, 비합리적 신념, 진로장벽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그 외 서지윤[13]은 취업처 선정 기준, 이은주[14]는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준비행동, 조민제[15]는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김은주 외[16]는 우울과 자살생각 등 이러한 변인들과 취업불안과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의 관계

를 연구한 바는 아직 없다.

역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란 개인이 자신의 생활지침으로서 갖게 되는 과도하게 경직되고 부적절한 규칙들을 의미한다[17]. 즉 개인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특정한 인지적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행동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엄격하고, 완벽주의적 기준을 사용하며,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념과 태도들을 말한다[18]. 이러한 역기능적 태도의 특징은 자신과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이며, 이를 자기 가치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데 있다[19].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대학생이 가진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첫 연구이다. 특히 취업불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4년제 대학 졸업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기술 인력과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대학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그 의미를 더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역기능적 태도 및 취업불안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표본 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유형 중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5. 21~6. 1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수도권 지역 2-3년제 대학생으로 하였다. 총 9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5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부적절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총 600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기초하여 측정도구인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

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셋째,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넷째,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correlation)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검증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문사회에서 사용되는 유의도의 유의수준인 5.0%($\alpha=.05$)이하를 채택하였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검증을 위한 각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Weissman과 Beck[20]이 제작한 Dysfunctional Attitude Scale-Form A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민규·이민수의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K-DAS)를 활용하였다. 역기능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완벽성, 타인의 인정, 자존감이라는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4].

취업불안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조규판이 개발한 취업불안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심리상태, 유발상황, 부모기대이다[11].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만들었다.

3. 실증분석결과

3.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51명(58.5%), 여자 249명(41.5%) 등이며, 전공계열은 이·공과 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계획은 취업이 월등히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351	58.5
	female	249	41.5
Grade	grade 1	288	48.0
	grade 2	261	43.5
	grade 3	51	8.5

Major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108	18.0
	business and economics	14	2.3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259	43.2
	health·music and physical	219	36.5
After graduation plan	get a job	448	74.7
	transfer university	71	11.8
	indecision	81	13.5

3.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대학생의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에 대한 38문항을 만들어 30명을 대상으로 pre-test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을 거친 34개의 문항으로 조사했으며 내용은 표 2와 표 3 같이 구성하였다.

대학생의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은 자존감 6문항, 타인의 인정 6문항, 완벽성 5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은 심리상태 7문항, 유발상황 4문항, 부모기대 2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변인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각 하위요인 모두에서 0.69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Dysfunctional attitude Factor analysis

question	self-esteem	others' approval	perfectionism
I am good for nothing.	.79		
I feel sometimes that I am a failed person.	.77		
I am not much to boast of.	.75		
I cannot respect myself.	.73		
I from time to time feel that I am not the good person like.	.68		
It is worth to receive the attention from the favorite person.	.44		
It is unhappy to be isolated from others.		.72	

It is unhappy not to have persons to support me.	.71	
It is unhappy to be hated by others.	.65	
It is terrible to be criticized by the person important to me.	.65	
It is important for others to think of me.	.61	
The person equipped with the good idea is worth.	.47	
It is the evidence of inferiority to make inquiries into something to others.		.73
To draw on a person for help is a sign of weakness.		.68
The person who is not superior to the others is an inferior person.		.60
The others disagreeing with me about my opinion do not like me.		.58
I am a failure as a human if I fail in what I do.		.49

[Table 3] Job-Seeking anxiety Factor analysis

question	physical condition	aroused situation	parental expectations
Thoughts of employment only make me feel a pressure on my chest.	.76		
I feel uneasy whenever I look to the uncertain future.	.71		
I become depressed whenever I think about the employment.	.70		
I become restless when I am vague to find a means of livelihood after graduation.	.69		
I feel tangled whenever I think of the employment.	.65		
The employment seems to be difficult since my current school is not so good.	.65		
I have no self-confidence whenever I think of the employment.	.65		
I feel uneasy to get a poor grade compared to my effort.		.80	
I feel uneasy to find the difficulty in employment in the media source.		.73	
I feel uneasy when the professor or the superior says it is hard to find the job.		.67	
I feel uneasy that the employment seems to be impossible owing to the poor proficiency in English.		.60	
I feel uneasy owing to the parent's expectation to the effect that the employment seems to be well after graduation.			.89
I feel uneasy owing to the high expectation of parents in connection with the future of mine after graduation.			.83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N	Cronbach's α
Dysfunctional attitude	self-esteem	6	.83
	others' approval	6	.73
	perfectionism	5	.69
Job-Seeking anxiety	physical condition	7	.88
	aroused situation	4	.75
	parental expectations	2	.82

3.3 역기능적 태도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취업불안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역기능적 태도는 심리상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상태가 높을수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여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증상을 유발한다는 조규관[11]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역기능적 태도에서 완벽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기 침체로 취업 경쟁이 과열되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졸업을 미루고 좀 더 탄탄한 취업준비를 하려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학생들 사이에서 졸업유예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어학연수, 자격증 등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역기능적 태도에서 특히 완벽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Effect of Dysfunctional attitude on Job-Seeking Anxiety

dependent	Independent	β	F	R ²
physical condition	self-esteem	.66	73.51***	.27
	others' approval	.83*		
	perfectionism	.45***		
aroused situation	self-esteem	.73	42.69***	.18
	others' approval	.22***		
	perfectionism	.24***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16	22.64***	.10
	others' approval	-.01		
	perfectionism	.36***		

*** p<.001, * p<.05

3.4 역기능적태도와 취업불안의 상관분석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대학생은 심리상태 · 유발상

항·부모기대에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인지적 특성인 역기능적 태도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불안이 역기능적 태도를 높이고, 높은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에 이르게 된다는 김지현[21]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이미경[22]의 불안 유발적 역기능적 태도가 높은 사람은 불안 유발적 역기능적 태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더 낮았으며, 인지적·정서적·생리적인 면의 불안증상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기능적 태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 부정적 자기말 등의 역기능적 인지(dysfunctional cognition)를 많이 갖는다는 박희석·오상우[23]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Table 6] Correlation of the analysis on the Dysfunctional attitude has Job-Seeking Anxiety

	self-esteem	others' approval	perfectionism	physical condition	aroused situation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1.00	.37**	.53**	.51**	.36**	.31**
others' approval		1.00	.32**	.27**	.34**	.12**
perfectionism			1.00	.33**	.27**	.23**
physical condition				1.00	.64**	.55**
aroused situation					1.00	.44**
parental expectations						1.00

**p<.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불안이 대학생의 인지적인 측면, 특히 역기능적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민규·이민수의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K-DAS)를 활용하여 자존감, 타인의 인정, 완벽성 등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역기능적 태도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상태 27%, 유발상황 18%, 부모기대 10% 등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태도 중에서

도 특히 완벽성이 심리상태, 유발상황, 부모기대 등 모든 면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관련 인지가 취업불안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 조규판[11]의 연구 및 우울·불안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가 인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5-7].

둘째,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의 상관분석 결과, 역기능적 태도는 심리상태·유발상황·부모기대에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인지적 측면과 취업불안에 관한 여러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21-23].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4년제 대학생 대상 기존 연구[13,26]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취업불안 차이가 검증되었으나, 2-3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역기능적 태도와 취업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점 남·여 구분 없이 직업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독립체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인식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짧은 기간에 기술과 지식을 익혀 취업할 목적으로 입학한 2-3년제 대학생은 입학학년이 지나면 바로 졸업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학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태도 중에서도 완벽성이 취업불안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뛰어난 수행이 아닐 경우 만족하지 못하며, 뛰어난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기대한 것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성취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늘 자기 비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완벽주의자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정서적 불편함 없이 목표를 성취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언제나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25].

이런 의미에서 대학생의 완벽성은 과열된 취업경쟁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확신 없이 취업시장의 현실과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또, 성취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성취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불안해하게 한다.

통계청 201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및 고령층의 부가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기준으로 졸업까지 필요한 기간이 5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6년 5개월(군복무기간 포함), 여학생 4년 5개월로 남·여를 불문 모두 한 학기 이상 늦춰서 졸업을 한다는

것이다[24]. 취업상황이 어려울수록 대학생의 완벽을 추구하는 역기능적 인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남부럽지 않은 스펙을 갖췄지만, 더 나은 스펙 쌓기에 매달리며 졸업을 미루는 ‘NG족(No Graduation)’, ‘5학년생’이 대학마다 넘쳐나고 있다. 2-3년제 대학생은 4년제 대학으로, 4년제 대학생은 대학원 진학으로 학업을 연장하는 등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의 인적자본투자는 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고학력 청년에 적합한 관참은 일자리는 쉽게 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대의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특히 대졸 신규구직자들에게는 점점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이 지속되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이 날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불안 수준을 경감하고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자신들의 열정을 펼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참고해 그들의 역기능적 태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취업불안 관련 연구가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 강요된 사회비교, 비합리적 신념, 진로장벽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 반해 본 연구는 역기능적 태도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따른 인식의 변화 또는 취업준비 방법이나 취업불안 수준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인 완벽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완벽성에 대한 역기능적인 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완벽성의 적응적인 기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과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Ricky Emanuel, "Anxiety", Seoul: EJ Books, 2003.
 [2] Statistics Kore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2013. 3.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B

[3] A. T. Beck,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1967.
 [4] Min Kyu Rhee & Min Soo Lee, A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dysfunctional attitude scale(K_DA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7, No. 2, pp. 273-286, 2002.
 [5] E. J. Johnson & A. Tversk, Affect, general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pp. 20-30,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5.1.20>
 [6] A. Ortony, T. J. Turner & S. J. Antos, A puzzle about affect for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9, pp.725-729, 1983.
 DOI: <http://dx.doi.org/10.1037/0278-7393.9.4.725>
 [7] N. Schwatz & G. L. Clore, Mood, misattribution, and judgements of well-being: Information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pp.513-523,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5.3.513>
 [8] A. Ellis & C. MacLaren,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 Therapist's Guide(2nd). Impact Publishers, 2005.
 [9] Hong Seok Ki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edictors of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2.
 [10] A. T. Beck,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6.
 [11] Kyu Pan Cho,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6, No. 2. pp. 53-75, 2008.
 [12] Ki Su Kang & Kyu Pan Cho, Understanding of anxiety and overcome: Philosophical, psych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Research, Vol. 20, pp. 21-41, 2006.
 [13] Ji Yoon Seo, Analyse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Insecurity and The Standard of Selecting Workplace of Senior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08.
 [14] Eun Ju Lee, The Effects of Employment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Verification of Medium Effect of Career-Decision Self-Efficacy,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2011.

- [15] Min Jae Cho,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2010.
- [16] Eun Joo Kim & Kyung Won Choi,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12 No. 5, 2012.
- [17] A. T. Beck, A. J. Rush, B. F. Show, & G. Emery,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1979.
- [18] Jung-Soon Yoo, The Effects of a Cognitive Restructuring Group Counseling Program on Depression, Stres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of Depressed Married Woman,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05.
- [19] N. A. Kuiper, L. J. Olinger & R. A. Martin, Dysfunctional attitudes, stress, and negative emo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533-547, 1988. DOI: <http://dx.doi.org/10.1007/BF01205008>
- [20] A. N. Weissman & A. T. Bec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al Therapy, Chicago, 1978.
- [21] Ji Hyu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problem solving and Dysfunction Attitude",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Administration at Konyang University, 2007.
- [22] Mi Kyoung Lee, "The Effects of Anxiety Prone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ppraisal on the Anxiety",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Administration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5.
- [23] Hee Suk Park & Sang Woo Oh, "Relationship of Dysfunctional Attitude and Coping Style with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1), pp. 128-139, 1993.
- [24] Seong Won Yo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ocus of Control on Stress towards Employment",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2008.
- [25] D. Burns,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 34-52, 1980.
- [26] Mi Kyong Kim, The Effect of Anxiety Level for the Cognition of Employment Po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 master's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08.

최 선 미(Sun-Mi Choe)

[정회원]



- 2009년 2월 : 송실대학교 노사관 계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 2009년 3월 ~ 2011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인덕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강사
- 2004년 2월 ~ 현재 : 가사마루 대표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여성진로

윤 성 원(Sung-Won Yun)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K up Dream Team 연구원
- 2010년 3월 ~ 2012년 8월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 수료

<관심분야>

성격심리, 비교심리, 진화심리, 직업상담심리학

손 민 정(Min-Jeong Son)

[정회원]



- 2005년 8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 석사
- 2009년 3월 ~ 2011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2000년 9월 ~ 2009년 7월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및 직업상담서 기보
- 2009년 8월 ~ 2011년 7월 : 가톨릭대학교 취업지도연구위원
- 2013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취업정보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상담, 직업정보